

10月号

韓国

CIR レポート



プサンではなく、ソウルでもなく

皆さん、こんにちは！韓国の国際交流員イ・スンファです。

私の地元は慶尚南道の金海市というところです。金海で生まれ育ち、大学5年間は釜山で、そして軍に入って1年9か月間ソウルで勤務しました。ソウルと釜山。韓国の定番の旅行先です。近くにある旅行会社に行けば2つの都市について説明されているパンフレットを読むことができます。

だからこそ今回はこの2つの観光地ではない所を紹介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早速慶州(キョンジュ)に向かいましょう。

1. 慶尚北道慶州(キョンジュ)市と仏国寺(プルグッサ)



↑瞻星台

慶州は千年間、古代国家である新羅(シルラ)の首都であったため様々な文化財が残っていて、有名な観光地であり、修学旅行先として定番の地域です。日本でいうと京都に似ています。いまだに遺物などが発掘されることがあるため、開発に関する規制が厳しく、昔の姿が残っています。そして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ている仏国寺(プルグッサ)というお寺が有名です。ちなみに基本的に慶尚道の学生たちは修学旅行で慶州に行くことはほぼありませんが、ソウルの学生たち(特に7-80年代生まれの方)は学生時代のアルバムを見れば必ずここで撮った写真があるほどです。



↑東宮と月池（左）、東宮と月池の夜景（右）

春には長い桜の道が見頃で、秋には紅葉と文化財が1枚の絵になります。夜には文化財がライトアップされ、夜だけの魅力を見せてくれます。そして特に東宮(トンゲン)と月池(ウォルチ)という所の夜景は個人的に韓国の文化財の中で一番きれいだと思います。

自然や文化財のほかに海に接している地域や湖を囲んで開発されたリゾート地とウォーターパーク、ほかに登山コースもありますので、自分の好みに合う旅行プランを立てる事もできます。



↑慶州南山の茸長寺谷三層石塔

特に山から眺める慶州は絶景で、山の様々な所に置いてある文化財に出会うのも一つの楽しみです。

私は慶州がとっても好きで、大学の時にはたまに平日の授業をサボって…1人旅をしていました。個人的には好きな人ができたら必ず一緒に行きたい地域です。朝から夜までずっときれいな所ですので、デートスポットとしてもぴったりですね。そして軍に入る1週間前には1人で南山を登った事もあります。

最近私が大学生の時とはまた違って、若者向けのおしゃれなカフェなども増えているそうです。静かで、落ち着く場所だった所が活力のみなぎる場所になったのは、個人的に少し寂しい気持ちもなくはないですが、時代に適応すること、大事ですよ。ひょっとしたら当時の慶州ではなく、慶州が好きだった当時の自分がな

つかしいだけなのかもしれません。

金海空港から出発するバスもあり、料金は 1000 円程度、時間は 1 時間ぐらいで行くことができるので、気軽に行っ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

2. 慶尚南道陝川(ハプチョン)郡・海印寺(ヘインサ)

福岡から釜山の金海空港や大邱(テグ)の大邱空港への直行便があり、慶尚南道・慶尚北道に訪れ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今回は私のお気に入りの慶尚道の観光地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韓半島は 1392 年に朝鮮という国家が建国される前までは国教として仏教が盛んでしたので、長い間、多くのお寺が建てられました。時代が変わり、様々な紆余曲折を経てほとんどのお寺は撤去されたり破壊されたりもしましたが、幸いなことに、美しいお寺が何か所か残っています。



↑海印寺

海印寺は 2007 年にユネスコ世界記録遺産に登録された高麗大蔵経版を保管しています。

高麗大蔵経版は名前のおり仏経を印刷するために作られた木版です…が、仏様の力で外部からの敵を追い払うという念願が実際の目的でした。

木版は 81,352 枚で、文字数は 5,273 万字です。昔の話では、1 文字掘るたびに 3 回額づいてからまた 1 文字を掘るというのを繰り返したそうです。つまり作るとき、お坊さんは 1 億 5 千万回ぐらい額づいたことになります。もちろん 1 人で作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けどね。

高麗大蔵経版には、世の中のすべての悩み事に対する答えが書いてあるそうですが、情報量が膨大で、全てを知るには何十年もかかるという話や、そもそも量が多すぎて答えを探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話もあります。



↑藏経版殿（左）、藏経版殿の内部（右）

そしてこの高麗大藏経版を保管している建物も文化遺産です。面白いところは高麗大藏経版が世界遺産に登録される時に建物も一緒に登録されたのではなく、12年も早い1995年に先に世界遺産として登録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この保管所の名前は藏経版殿と言います。高麗大藏経版は木で作られたのにも関わらず、その原型がほぼ完璧に保存されています。その理由は、藏経版殿が科学的に設計されたからです。

まず、床は一番下に砂と石灰の粉、粘土を混ぜて敷いたものを土台とし、その上に炭と塩を載せて造られました。このことが保管所自体の菌の繁殖を防ぐと同時に、湿気を調節する効果をもたらしています。湿度が高い時は炭と塩が湿気を取り、乾燥した時には溜めておいた湿気を放出します。それだけではなく、前と後ろに配置された窓を利用して、外部から入ってくる空気が内部を一回りしてから外に出るように工夫され、適度な温度が維持されています。

現代になり、瓦を金属にしたり、コンクリートの保管所を建てたりしましたが、金属で作られた瓦は重くて藏経版殿の柱に負担がかかったり、熱伝道率が高くて内部の温度を維持できませんでした。そしてコンクリートの建物に保管した結果、結露が発生して結局は最初の藏経版殿に戻ったそうです。

興味深いところは、今まで海印寺では7回の火災があったにも関わらず、この藏経版殿は1回も火災による被害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本当に仏様がこのお寺を守ってくれているのかも知れませんね。

* 出典

・高麗大藏経版、海印寺藏経版殿 - 이응준(イ・ウンジュン), 共有マダン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419219&menuNo=200018>、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419316&menuNo=200018>)

・茸長寺谷三層石塔 - 文化財庁、国家文化遺産ポータル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2,01860000,37&pageNo=5_1_1_0

・瞻星台 - 韓国観光公社、公共ヌリ

<http://www.kog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atcUrl=keyword&recommendIdx=2872>

・東宮・月池 - 文化財庁、国家文化遺産ポータル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13337001800

10 월호

한국

CIR 레포트



「부산말고, 서울도 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국제교류원 이승화입니다.

제 고향은 경상남도 김해시라는 곳입니다. 김해에서 태어나 자라고, 대학교를 다니는 5년 간 부산으로 등하교를 했으며, 군대에 들어가서는 1년 9개월 동안 서울에서 복무했습니다. 부산과 서울,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죠. 근처에 있는 여행 회사에 가시면 두 도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팸플릿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두 관광지가 아닌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른 경주로 향해볼까요?

1. 경상북도 경주시와 불국사



↑ 첨성대

경주는 천 년동안 고대국가인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러 문화재가 남아있고, 유명한 관광지이자 물론 수학여행지로서도 가장 일반적인 곳입니다. 굳이 일본에서 예를 들자면 교토같은 곳이겠네요. 여전히 유물이 발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관한 규제가 엄격하여 옛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불국사라는 절이 유명한데요. 참고로 기본적으로 경상도의 학생들은 수학여행으로 경주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서울의 학생(특히 7-80년도생)은 학창시절 앨범을 보면 반드시 이곳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 동궁과 월지(좌), 동궁과 월지 야경(우)

봄에는 긴 벚꽃 길이 볼만하고, 가을이 되면 단풍과 문화재가 한 장의 그림이 됩니다. 밤에는 문화재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동궁과 월지라는 곳의 야경은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재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나 문화재 말고도 바다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나, 호수를 둘러싸고 개발된 리조트 및 워터파크, 말고도 등산 코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에 맞는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경주 남산의 용장사곡삼층석탑

특히 산에서 바라보는 경주는 절경이며, 산 군데군데에 놓여있는 문화재와 만나는 것도 한가지 즐거움입니다.

저는 경주를 정말 좋아해서, 대학생일때는 평일에 있는 수업을 빼먹고...혼자 여행을 하고는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곳이니, 데이트 코스로도 딱 맞겠죠? 그리고 입대하기 1주일 전에는 혼자 남산을 오른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대학생이었던 때와 다르게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감성적인 카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하면서도 마음을 가라 앉혀주던 곳이 활력 넘치는 곳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조금 슬픈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어쩌면 당시의 경주가 아니라,

경주를 좋아했던 당시의 제가 그리운 것 뿐일지도 모르겠네요.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있고 요금은 만 원 정도, 걸리는 시간은 1 시간 정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2. 경상남도 합천군과 해인사

한반도는 1392 년 조선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기 전 까지 국교(國敎)로서의 불교가 왕성했기 때문에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많은 절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화며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는 사이에 많은 절이 철거 되거나 파괴 되었지만, 다행히도 아름다운 절이 아직 몇군데 남아있습니다.



↑ 해인사

해인사는 2007 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고려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려대장경판은 이름 그대로 불경(佛經)을 찍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목판입니다...만, 부처님의 힘으로 외부의 적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었습니다.

목판은 81,352 장, 새겨진 문자 수는 5,273 만자입니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의 문자를 새길 때마다 3 번 절을 하고 나서 다시 다음 글자를 파는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즉 만드는 동안 스님은 약 1 억 5 천만번 절을 한거죠. 물론 한 분께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요.

고려대장경판에는 세상의 모든 고민에 대한 해답이 적혀있다고 하는데, 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자 하면 몇 십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나, 애초에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장경판전(좌), 장경판전 내부(우)

그리고 이 고려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도 문화유산인데요. 재밌는 것은 고려대장경판이 세계유산에 등록될 때 이 건물도 같이 등록된 것이 아니라 고려대장경판보다 12년 빠른 1995년에 먼저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는 겁니다.

이 보관소의 이름은 장경판전이라고 합니다. 고려대장경판은 나무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형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장경판전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닥은 가장 밑에 모래와 석회 가루, 점토를 섞은 것을 깔 뒤, 그 위에 차례대로 숯과 소금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보관소에서 균의 번식을 막음과 동시에 습기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습도가 높을 때에는 숯과 소금이 습기를 빨아 들이고, 건조한 때에는 머금어 두었던 습기를 내뿜는 거죠. 그 뿐 아니라 전면부와 후면부에 배치된 창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내부를 한 바퀴 돌고나서 밖으로 나가도록 설계되어,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 기와를 금속으로 바꾸거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보관소를 세운 적이 있었는데, 금속으로 만든 기와는 무거워서 장경판전의 기둥에 부담을 가하거나 열전도율이 높다보니 내부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에 시험삼아 몇 장만을 보관해본 결과, 결로가 발생하여 결국은 다시 원래 장경판전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해인사에서 7번의 화재가 있었음에도 이 장경판전은 한번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로 부처님이 절을 지켜주시고 계신 것일 수도 있겠네요.

* 출처

• 용장사곡삼층석탑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2,01860000,37&pageNo=5_1_1_0)

• 첨성대 - 한국관광공사, 공공누리

(<http://www.kogil.or.kr/recommend/recommendDivView.do?atcUrl=keyword&recommendIdx=2872>)

• 동궁과 월지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1_1_0&ccbacpno=1333700180000)

• 고려대장경판, 해인사 장경판전 - 이응준,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419219&menuNo=200018>、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419316&menuNo=200018>)